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5. 12. 12.(금) 16:00

연대와 참여로 만드는 활력있는 지역,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길을 찾는다

- 김민재 차관, 김제시 귀농귀촌 로컬재생 공간 및 사회연대경제 사업지 방문
- 사회적협동조합 ‘보담’, ‘요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’ 현장 찾아 의견 청취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2월 12일(금) 김민재 차관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방문해 귀농귀촌 로컬재생 복합문화 공간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.
- 먼저, 김민재 차관은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를 방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조성한 ‘귀농귀촌 로컬재생 복합문화공간’ 현장을 살피고 사업 현황을 청취하였다.
- 해당 공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양조장을 정비해 식당,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, 귀농귀촌 희망자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, 프로그램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.
-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, 베이커리, 음식점, 공방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통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어 마을의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.
- 김 차관은 조성된 공간을 둘러보며, “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생활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며,
- “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 유입과 생활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이어서, 김 차관은 ‘사회적협동조합 보담’과 ‘요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’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과 근무 여건, 서비스 제공 체계 등을 살펴보았다.
- ‘사회적협동조합보담’은 지역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, 장애인 활동지원과 방문 돌봄 등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, 돌봄·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.
- ‘요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’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유희공간 정비, 골목 환경 관리, 체험·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, 김제시 원도심 활력 회복에 힘쓰고 있다.
- 김민재 차관은 “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의 돌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,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”라며,
- “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, 연대,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,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주무관	라세화 (044-205-3105)
<사회연대경제>	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제도과	책임자	과 장	권영우 (044-205-3572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정 (044-205-3579)
<지방소멸대응 기금>	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박종근 (044-205-3501)
		담당자	사무관	강경국 (044-205-3502)